



art

INCULTURE

FL WER

POST-FLOWER 시대에 따라 꽃도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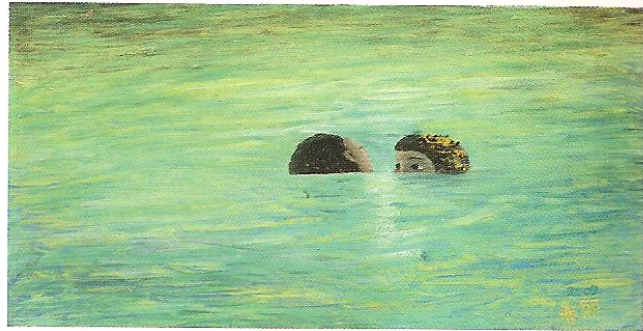
Report 뉴욕 아모리쇼 · 도쿄 게이사이 Artist 베르나르 프리츠 · 레이몽 드파르동

2009 4

임춘희展

2. 25~3. 10
사이아트갤러리

글 | 고충환 · 미술평론가



‘풍경 속으로’ 작가의 근작의 주제이다. 최근 전원생활을 하게 된 작가의 환경변화에 기인한 주제 같다. 하지만 이미 작가의 그림들은 풍경이라고 지칭되기 이전부터 일종의 풍경이었다. 어떤 전망으로서의 풍경. 다만 그 전망의 대상이 변화할 뿐이다. 정적 가운데 일렁이는 불안이라든가 낯설음 등의 내면의 심적 동요를 투사한다거나, 어떤 무의식적이고 자전적인 퍼스펙티브를 열어놓는다거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숙성시킨다거나 함으로써,

대체로 그 풍경들은 요지부동의 전망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부대끼고 갈피를 잡지 못한다. 정작 풍경은 무거운데, 나는 상실감으로 가벼워진다. 그 요지부동의 풍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때로 풍경은 존재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견고하고 아득하고 멀리 느껴진다. 도대체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풍경 속에 잠긴다는 것, 풍경에 동화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또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메를로 폰티는 세간의 풍경화를 분석하면서 세잔과 풍경이 서로에게 동화된 나머지 일체화된 것으로 진단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져 있어서 분리할 수 없다고 본다.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허물어진 유기적 덩어리(우주적 삶)를 이룬

상태로 본 것이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명확히 분리해온 전통적인 서구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식론적 단절로 느껴질 만큼 급진적이지만, 동양의 관점에서는 결코 새삼스럽지가 않다. 주객 일체사상으로 나타난 직관의 소산을 분석적 인식으로 풀어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주체와 객체를 일치시킬 것이며, 나와 풍경이 동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인식보다는 직관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대상을 향한 집요하고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그 대상이 부지불식간에 피막을 찢고 자기의 속살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더불어 대상이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일레가 어린아이에게는 쉬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대상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신의 마음을 대상 향해 완전히 투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직관이란 열린 마음의 교감이며 이때의 열린 마음이란 어떠한 결정적인 전망(사태 혹은 형식 혹은 방식)에도 기대치 않은 마음을 일컫는다.

임춘희의 그림 역시 풍경과 인물이 서로 삼투해 있다. 풍경과 인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일체화되고(풍경인물 남자와 풍경인물 여자), 마침내는 완전하게 동화된다(풍경인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일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잣대 없이 본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에 오염되지 않은 세상은 당연히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고 생경해 보일 것이다.

작가의 풍경 역시 처음에는 낯설고 생경하다(낯선 분위기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다), 결코 쉽게 자기를 열어주지 않는다(등진 풍경), 무슨 막이 낀 듯 흐릿한 풍경이 상실감마저 자아내면서 무중력 상태에서처럼 부유하게 한다(무거운 풍경과 가벼운 존재감), 그러던 것이 점차 그 막이 열리면서 풍경 속으로 들어가 동화되게끔 만든다(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한 어떤 감정).

이처럼 임춘희의 근작은 나와 풍경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서로에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풍경 속으로, 풍경이 내 속으로 드나드는 과정과, 주와 객이 그 경계를 허물며 유기적 덩어리로 일체화되는 과정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자연을 참조한 풍경이긴 하지만 그 풍경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풍경, 무의식적이고 상의적인 풍경, 존재론적 풍경으로 다가온다.

위 · 〈잠기다〉 목판에 유채 14.2×27.3cm 2009
아래 왼쪽 · 〈고정된 풍경 속 해엄치다〉 한지에 유채 148×213cm 2008~2009
오른쪽 · 〈익숙하기도 낯설기도 한 어떤 감정〉 목판에 유채 34×39cm 2008

